

공사상의 참모습 논리적 제시

김성철씨 '백론·십이문론'·'회쟁론' 번역 출간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가장 잘 설명해 놓았다는 이른바 '삼론'이라 불리는 <중론> <백론> <십이문론>은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필독서 중의 하나다. 공사상은 연기법의 바탕을 이루는 불교의 핵심사상이기 때문이다.

김성철씨(동국대 강사)가 번역 출간한 <백론·십이문론>과 <회쟁론>(경서원 판)은 공사상을 밝혀 놓은 것으로, 국내 학자가 원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현재 <백론>과 <십이문론>에 대한 번역본으로는 <한글대장경>만이 유일했으나 오역이 많은 것이 흠으로 지적돼 왔다.

또 <회쟁론>의 경우는 원문 없이 번역본만 실은 동종본의 <용수의 대승사상>(진영사 판)이 있으나 일본

역서를 저본으로 했다.

특히 김씨가 번역한 <회쟁론>은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함께 티벳어역본, 한역본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한 대역본(對譯本)으로 우리나라 불교학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십이문론>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용수보살의 저술로, 반야 공사상을 중도 연기설과 연관시켜 논리적으로 설명한 <중론>(용수보살 집)의 내용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다. 그의 제자 아리아 제바가 저술한 <백론>은 정교한 논쟁을 통해 공사상을 치밀하게 밝혀놓은 책이다.

이 두 권을 한데 묶어 번역한 <백론·십이문론>은 독특한 구성이 특징. 본문 내용은 저자, 즉 용수보살과 제바가 설명한 원문은 '내말(內白)'로

국내학자 첫 원문 번역 이해 어려운 구절 각주 달아 쉽게 풀이

이해 대한 해석은 '중관론사'로 구분돼 있다. 또 저자의 원문에 대한 반박적 논리를 띤 내용의 원문을 '외말(外白)'로 그 해석을 '반대론자'로 구분함으로써 논점의 초점을 명확히 밝혀 놓고 있다. 원문만의 번역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에 대해서는 역자 나름대로 과학한 행간의 의미를 괄호 속에 넣어 번역본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일본 <대장신수대장경>에 실려있는 <백론>과 용수보살의 <십이문론>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각주를 달아

원 뜻을 훼손시키지 않고 전달하려 노력했다.

용수보살의 <회쟁론>은 "공사상이 자기당착에 빠진 것이 아닌가" "공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닌가"라는 의도들의 반론에 대해 정교한 논리로 반박함으로써 공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저술로 꼽힌다.

김씨의 번역서 <회쟁론>은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함께 티벳어역본, 한역본 등 3개 언어의 원문을 그대로 실고 이를 언어에 맞는 번역을 해놓음으로써 공의 의미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쟁론>의 내용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산스크리트어 번역본만 발췌한 후 역자 나름대로 행간의 의미를 삽입해 의역한 '들어는 <회쟁론>'도 책 말미에 실어 놓았다. 각 권 1만8천원.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도 구법기 | 도오님 번역

현장법사 구도과정 소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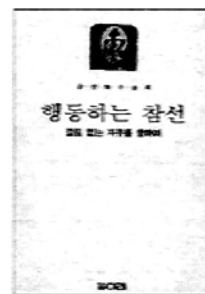
당대(唐代) 불교문화가 찬란했던 것은 인도 불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걸었던 5만리 여정은 바른 정법을 전하기 위한 굳은 의지와 인내의 과정이다.

전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이었던 도오님이 펴낸 <당나라 현장법사-인도구법기>는 중국에서 발간된 <현장전>을 번역한 책이다. 하지만 딱딱한 역사와는 달리 현장법사의 일대기를 소설처럼 구성해 놓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대화체 문장으로 현장감을 높여 실감나게 읽힌다. 부록으로 <현장전> 원본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경서원, 7천원>

환제의 색

행동하는 참선 | 정명학 지음

세상사 선의 대상 아닌 것이 없다



불교의 체험담을 소개했던 <종교 비우고 버리기>에 이은 정명학 거사의 두 번째 책.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선(禪)에 대한 생각을 펼쳐 보이고 있는 수필형식의 수필록이다. 주제는 세상 어떤 것이든 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선의 대상을 선지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일상사에서

순간순간 접하게 되는 사소한 것들도 바로 그 대상을 생명의 단편들을 통해 보여준다. 중간중간씩 섞인 다소 어려운 문장이 수필형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도 있지만 선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데는 도움이 될만 하다. 정명학 거사는 현재 양재동 우곡선원에서 참선지도도를 하고 있다. (여래, 8천원)

"경허스님을 보면 나를 바로 볼 수 있다"

한중광씨 평전 '경허길 위의 큰 스님'

소장학자 한중광씨가 펴낸 <경허길 위의 큰 스님>(한길사 판)은 경허스님의 동정이다. 경허스님의 개성과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 가야 할 참사람의 길, 참삶의 길을 찾아 가는 구도의 여정을 보여준다.



경허스님의 탄생을 성장과정에서부터 출가, 수행과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상충이 맞는 스님의 발언을 삽입해 놓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 경허스님에 관한 다른 책들과 비교해 단순히 전기식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문학적 수법으로 일화들 다듬으면서 경허스님의 본래면목을 살려내려 애 쓴 것도 특이하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5,000Km를 달렸다. 경허스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았다. 그러면서 얻은 깨우침 하나, 나를 바르게 보고 싶으면 경허스님을 바르게 보라. 경허를 바르게 보면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나를 바르게 보면 바로 부처가 아니겠는가.

그런 저자의 깨우침은 책 곳곳에 들어난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을 허공에 새기는 법이다든지 대자연과 하나 된 무심도인의 마음과 같은 경허스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그렇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낀 것일까, 저자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상상을 초월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증명하려 회향하려 한 그 뜻은 무엇인가. 경허스님의 삶에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값 1만원.

"부처님 대기설법 카운슬링의 핵심"

김용택교수 번역 '카운슬링 불교'

카운슬링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 중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신적 빈곤상태에 놓인 현대인은 그만큼 많은 카운슬링을 요구한다.

일본 불교사회운동가 후지타 기요시의 <카운슬링 불교>(시공사 판)는 카운슬링 불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그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경전에 나타난 카운슬링의 여와 함께 카운슬링 불교의 성립과 발전, 카운슬링을 대하는 불교적 태도와 방법, 실천방법 및 실습

등의 내용이 폭넓게 설명돼 있다. 역자는 김용택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

저자는 천차만별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살렸다는 부처님의 '대기설법(對機說法)'에서 보듯이 카운슬링은 그 개별 도인이 진부러 불교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같은 불교정신적 구조적 실천방법을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카운슬링 불교는 바로 이러한 개념을 담은 현대적 접근 방법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사할



인생 상담의 성립과 운영방식, 카운슬링의 자제들과 함께 대학원 집단을 통한 카운슬링 실습 과정 및 결과는 불교에서 카운슬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르르 삼을 만하다. 값 7천원.

한영우 기자

'현행경의 세계'

거정스님 번역 범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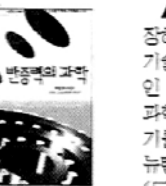
경남 하동 삼지르물에서 수행중인 거정스님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현행경>의 정법을 널리 알리고 수행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경의 세계>(대명인쇄 판)를 펴냈다.

<현행경>은 고려시대 원찰조사가 영한 거조찰에서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경전으로 정토종법의 참법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현행경의 세계>는 이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골라 번역해 놓았다.

거정스님은 "많은 분들이 <현행경>을 통해 불법의 길이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책을 필로트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범보시할 계책"이라고 말했다. (0691)737-0407

새로 나온 책

▲서원건축=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22권. 서원건축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조선시대 건축을 대표하는 소중한 건축 분야다. 성리학자들의 정신이 깊이 투영된 서원에는 절제와 추상의 정신, 우주와 인간을 일체화시키려 했던 노력들이 깃들여 있다. 이 책은 서원 건축의 역사를 비롯해 입지와 배치형식, 기능, 건축 자선으로서의 가치 등 모든 것을 시원한 컬러화보와 함께 담았다.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농촌으로 들어가 농사짓기를 꿈꾸며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엮은 책. 농촌의 의미, 생태적 가치 추구, 유기농법 등 귀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치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반종교의 과학=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과학 기술 중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등의 신기술을 개척하는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 교양 과학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반(反)하는 반종교 현상을 응용한 장치 등 신에너지 장치와 무한 동력 장치들을 만날 수 있다. 과학에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책. 저자는 한양대에너지연구소 신과학정보센터 허창우 박사. (모래, 9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정가 9192 원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참선요지	대성	여시문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정	동쪽나라
3	가을은 짙은 푸른색(소)	성우·재현	민족사
4	불자의 가본예절	일타	효림
5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6	산은 산 줄은 줄	정찬주	민음사
7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문의	불교시대사
8	불교의 과학	법운	불교출판사
9	현장포교의 방법과 실제	이동성	경우서적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봉	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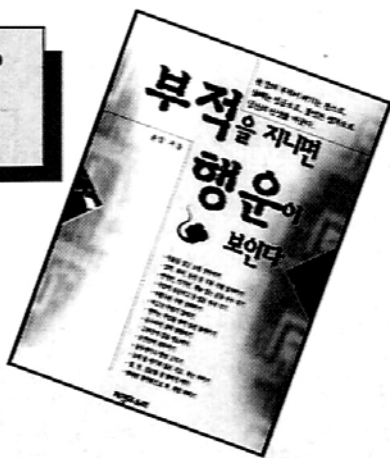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부적을 지니면 행운이 보인다

운담 지음/ 값 9,500원

아직도 부적을 돈으로 사십니까?
"원하는 부적을 소려서 지니세요."

한장의 부적시
위기는 전승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생명공학과 부적

박기정 지음/ 값 9,000원

도서출판 제침의 소리 전화: 02)444-3575

총판 윤주사 02)720-9372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영험으로 얻은 불타대종, 대장경의 숨겨진 10만 가지 이야기로 짜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원출판 5,000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8-17(우:140-190)
대표전화: (02)737-6117 북서발리: (02)775-8043